

일본근대여성의 직업의식 고찰

- 『세이토(靑鞆)』 1기(1911~12년) 작품을 중심으로 -

朴 裕 美*

(e-mail: sabinaz@hanmail.net)

목 차

1. 시작하며
 2. ‘천직’과 ‘직업’의 분리
 3. 자립에 대한 동경
 4. ‘상실’로서의 직업
 5. 마치며
-

1. 시작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는 일본의 근대화가 가져온 변화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이 생겨났다”¹⁾는 1910년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메이지말기에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은 극히 힘든 일 이었고, 여성 자신도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이 증가했다고 언급되는 것은, 당시로서는 그 자체로도 매우 눈에 띄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여성 직업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다이쇼기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일컬어진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여성의 직업이 좋든 싫든 확대되어 이전에는 특수했던 취직자수가 증대되고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²⁾에, 직업을

* 충남대학교 강사. 근현대일본문학 전공

1) 「女子職業熱の勃興」 『東洋詩論』 제1권2호 1910년 (村上信彦(1983) 『大正期の職業婦人』 ドメス出版, p.8 재인용)

2) 村上信彦(1983) 『大正期の職業婦人』 ドメス出版, p.22

여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직업부인’³⁾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으며, 비록 이 말에 “여성이 일한다는 것에 대한 경멸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는 했으나”⁴⁾, 그럼에도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점차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여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정되어갔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무라카미 노부히코(村上信彦)에 의하면 “다이쇼기에는 여성이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든가 여자답지 못하다는 비난은 줄고 여성잡지가 여성 직업의 안내를 특집으로 하는 등 여성의 직업진출을 신시대의 특징으로 여기게 되었다”⁵⁾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직업이 이처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데는 제1차세계대전의 영향이 매우 컸다.⁶⁾ 따라서 일본근대여성의 직업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이후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다이쇼 직업부인의 특질 또한 이시기 이후에 확립되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시기에 경도되어 있는 연구 경향에서 탈피, 1911년에 창간된 여성문예지 『세이토(靑鞆)』를 대상으로, 다이쇼 초기의 과도기적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세이토』의 여성들은 ‘신여성’이라 불리며 다이쇼 직업부인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교육의 확대를 통해 근대적 사상을 갖춘 여성들이 “근대적 자아의 확실한 증거로 직업의 길을 택했다”⁷⁾는 평가와는 달리 『세이토』 지상에는 직업의식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때문에 『세이토』는 일본근대여성들의 직업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추이를 살피는 데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연구 범위를 『세이토』 1기(1911년~12년)⁸⁾에 한하는 것은, 170편에 달하는

3) 직업부인의 의미는 “일정한 사회적 직업을 갖는 부인을 가리키며, 더 구체적으로는 보수를 얻기 위해 집을 떠나 일정한 고용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부인”(『직업부인에 대해』 『여급생활의 신연구』근대부인문제명저선집 (사회문제편, 일본도서센터 쇼와 58년 5월, p.3)을 가리키나, “얼마간 지적 내지 정신적인 사무적, 보조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부인노동자와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부인공론대학』 중앙공론사편 1931-32 p.8)

4) 小山静子(2007) 『良妻賢母という規範』 勁草書房. p.98

5) 앞의 저서 2) 村上信彦(1983) p.71

6) “최근에 굉장한 기세로 증가, 특히 다이쇼7,8년의 대호경기를 경계로 하여 급격히 늘어, 동12년의 간토지방 대지진 후로 거둬 대단한 증가율로 오늘에 이른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奥 むめお(1931) 『職業婦人の進出』 『婦人公論大学』 中央公論社. p.10] 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인직업의 급증에는 대전경기와 간토대지진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7) 井手文子(1975) 『『靑鞆』の女たち』 海燕書房. p.125

8) 제1기 (1911년 9월 ~ 1912년 12월)

제2기 (1913년 1월 ~ 1914년 12월) : 1912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통해 타락한 ‘신여성’집단으로 비판받게 되자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1913년 1월에 여성문제에 관한 특별부록이 첨부

소설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분석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⁹⁾ 또한 1912년의 일련의 사건¹⁰⁾으로 ‘타락한 신여성’집단으로 비판받게 되자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13년부터 특히 평론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직업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천직’과 ‘직업’의 분리

세이토사를 창립시킨 중심인물이자, 『세이토』의 편집책임을 맡고 있던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의 자서전은, 그녀가 일찍부터 직업을 갖고 자립하고자 했음을 말해준다.

라이초의 첫 소설인 「사랑이 끝나는 날(愛の末日)」은 여대를 나온 여성이 독립을 결의하여 지방의 여학교 교사로 부임하기 위해 애인과 결별한 후 타지로 홀로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설에 대해 라이초는 “이러한 여성을 특별히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썼던 것은 아니며, 자연스럽게 그러한 내용이 쓰였다”¹¹⁾고 언급하고 있는데, 라이초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여성을 통해 본인의 바람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되고, 2월 12일에는 같은 테마로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여성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1913년에 그 정점을 이룬다.

제3기 (1915년 1월 ~ 1916년 2월) : 이토 노에가 편집책임을 맡던 시기. 정식 책임자는 아니었으나 히라쓰카 라이초의 대리로 편집을 담당하기 시작한 1914년 11월부터를 제3기로 본다.

9) 제1기의 작품 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제1권1호 「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平塚らいてう), 「七夕の夜」(物集和子)

제1권2호 「ある夜」(尾島菊子)

제2권2호 「他人の子」(木内錠)

제2권3호 「お葉」(物集和子)

제2권4호 「執着」(加藤みどり) / 「タピスト」(神崎 恒)

제2권9호 「泥水」(小笠原貞) / 「老師」(木内錠) / 「手紙の一寸」(神近市子) / 「重子」(加藤かずこ)

제2권10호 「進化上より見たる男女」(上野葉子)

제2권11호 「水囊」(加藤みどり)

10) ‘세이토 2대 스캔들’이라 일컬어지는 ‘오색주(五色の酒)’, ‘요시와라등루(吉原登楼)’ 사건.

이를 계기로 세이토 사원들의 사생활이 흥밋거리로 치장되어 폭로되는 등, 세이토 사원에 대한 공격과 중상예의 불길이 당겨지게 된다. 지식인들마저 저널리즘에 동참하여 세이토사에 대한 비난에 가세하였으며 사무실과 라이초의 집에 투석이 날아들고 협박장이 난무, 세이토사를 ‘불량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만들어지면서 구독중지와 탈퇴가 이어지고 세이토사의 본격적인 수난 시대가 시작된다.

11) 平塚らいてう(1975) 『原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上巻 大月書店. p.212

뿐만 아니라 3학년 여름방학에 한 강습회에서 속기를 접한 후, 정식으로 속기를 배우고 실제로 돈을 벌기도 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속기를 배웠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왜 속기를 배웠는가 하면 졸업 후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큼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습시다만, 먹고 사는 일에 온통 자신을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생활의 수단으로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속기의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중략) 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2)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이초는 생활에 치여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걱정하여 단순히 생활의 수단으로서 속기의 일을 택했다. 이는 라이초에게 직업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한편으로 그녀가 돈을 벌기 위한 ‘직업’과 자신이 평생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할 ‘천직’을 구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천직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라이초의 직업의식은 『세이토』의 창간사 「태초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단지 외부의 압박이나 구속에서 벗어나 소위 고등교육을 받고 폭넓게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참정권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소천국의 부모와 남편이라는 보호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른바 독립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우리 여성의 자유해방이라 할 수 있겠는가.”

(「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 p.47)¹³⁾

‘고등교육’이나 ‘직업’ ‘참정권’ 등은 남성과의 평등을 주장하며 여성들이 획득하고자 했던 사항들이다. 그러나 라이초는 이를 “남성을 부러워하고 흉내내

12) 앞의 저서 11) 平塚らいてう(1975) p.180

なぜ速記を習ったかという、卒業後に自分のやりたいことだけのことはやろうと考えていたわたくしは、それを一個の独立した人間としてやってゆくことを願っていましたが、食べることだけに自分がとられてしまわないように、生活の手段としては機械的にやれる速記の仕事をして、片方で自分のやりたいことを(中略)やってみようと考えていたからでした。

13) <『青鞥』復刻版(1983) 不二出版>을 텍스트로 하며, 인용문의 한국어 번역은 필자에 의함.

併し只外界の圧迫や、拘束から脱せしめ、所為高等教育を授け、広く一般の職業に就かせ、参政権をも与へ、家庭と云ふ小天地から、親と云ひ、夫と云ふ保護者の手から離れて所為独立の生活をさせたからとてそれが何で私共女性の自由解放であろう。

며 그들이 걸어온 길과 똑같은 길을 뒤쫓아 가려고 하는 여성”이라 치부한다. 이들은 “진정한 자유해방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좋은 환경과 기회”가 될지는 모르나 그것은 단지 ‘방편’이나 ‘수단’에 불과할 뿐이기에 ‘목적’이나 ‘이상’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라이초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즉 천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이토의 사원은 (중략)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숨은 천재를 발현한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존중하고 타인이 범할 수 없는 각자의 천직을 완수하기 위해 오직 정신을 집중한다.

(「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 p.52)¹⁴⁾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나,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단지 방편이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이를 수 없다. 여성들에게도 역시 천재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라이초는 인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소질을 살려 일생의 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의 ‘천직을 완수’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직’에 대한 의식은 가토 미도리(加藤 みどり)의 소설 「집착(執着)」(2-4)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연애결혼을 한 히사코(久子)라는 여성을 통해 연애와 결혼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문학을 지향한 여성의 결혼생활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가토 미도리의 자전적 소설로, 작품에서 사와노(沢野)로 등장하는 남편 가토 아사토리(加藤朝鳥)와의 연애를 거쳐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그 후 결혼생활의 모순과 갈등을 그린 작품이라 하겠다.

주인공 히사코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고향을 떠나 공부 중인 동생들을 돌보며 집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의 여성으로서 이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갈등한다. 그러던 가운데 아버지가 결혼을 권유하자 비로소 ‘자신’이라는 존재를 버릴 수 없다고 ‘자각’하게 된다.

이대로 희생이 되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 분하다. 삶의 보람이 없다. 학문한 보람이 없다. 아무래도 자신을 발전시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에게 인간으로서의 천직이 있다면 그 천직을 완수하지 않으

14) 밑줄은 인용자에 의함

青鞜社の社員は (中略) 一人残らず各自の潜める天才を発見し、自己一人に限られたる特性を尊重し、他人の犯すことの出来ない各自の天職を全うせむ為に只管に精神を集中する

면 안 된다. 자신은 그저 좁은 ‘여자’라고 하는 이름, 딸, 혹은 언니·누나라고 하는 이름에 속박되어 이대로 허망하게 죽을 수는 없다고 고쳐 생각했을 때 각각의 빛이 히사코의 마음에 가득 찼다.(「執着」 p.19)¹⁵⁾

“아무래도 자신을 발전시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에게 인간으로서의 천직이 있다면 그 천직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주인공 히사코의 ‘천직’에 대한 의식은 히사코에 자신을 투영한 작가 미도리뿐 아니라 “메이지 말부터 다이쇼기에 걸친 청년들, 『세이토』의 여성들이 빈민한 공통의 문제”¹⁶⁾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시인으로 등단한 히사코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천직’이라 확신한 것은 다름 아닌 ‘문학’이었다. 그렇기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문학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와노와 결혼하여 문학의 길을 걷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계속될수록 그녀는 점차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에 묻혀 오히려 문학을 잃어간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 무리한 요구만하니까요. 한편으로는 남성적이 되라 하고 한편으로는 여성적이 되라 하고, 밖에 나가 활동하면서 또 가정 안에서는 종래의 여자와 같은 일을 요구하잖아요. 정말이지 무리예요.(「執着」 p.25)¹⁷⁾

‘자신’을 발전시키고 ‘천직’을 완수하고 싶다는 이상의 실현을 위해 자유결혼을 택했으나 그 결혼이야말로 히사코를 억압과 속박의 운명에 빠뜨리는 함정이 되었다. 이제 결혼생활과 자신을 살리는 길의 모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 대립을 깨달은 히사코에게 결혼생활은 단지 고통과 괴로움을 줄 뿐이다.

그러나 남편은 이러한 히사코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양(修養)’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며 여기자가 되길 강요한다. 히사코는 “저는 여기자가 되지 않고도 수양의 길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제 나름의 이상도 있으니 까요”라고 항변하는데, 여기에서의 ‘이상’이 바로 ‘천직’으로서의 문학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히사코는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천직’을

15) 此の儘犠牲となって何のなす事もなくて死んで了うのかわいかにも惜しい。生まれ甲斐がない。学問した甲斐が無い。どうしても自己を発展させて立たねばならぬ。自分に人間としての天職があるなら其の天職を全ふせねばならぬ。自分は唯狭い「女」と云ふ名、娘、或は姉と云ふ名に縛られて此の儘朽ち果てべきではない!と考へ直した時、自學の光は久子の心に満ちた。

16) 岩田ななつ(2003) 『文学としての『青鞥』』 不二出版. p.130

17) 男って者は女に対して、無理な要求ばかりするんだから。一方男性的たれ、一方女性的たれ、外に出て活動した上に家の中では従来女と同じやうな事を要求するんですもの。全く無理だわ。

추구하고 있기에, 여기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남편은 문학과 자립이라는 이상을 입으로만 추구할 뿐, 그 이상을 뿌리 채 잘라버리는 위선적 존재로 다가온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여성들의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이와 더불어 여성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 근대적 지식과 사상을 지닌 여성들은 차별적 사회구조에 반발하며 자신의 내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진정한 자신의 일로 믿게 되었다. 근대 여성들의 이러한 상승지향은 이윽고 문학과 천재라는 돌파구로 향하게 된다.

“정말이지 이 무렵의 젊은 여성이 문학에 대해 품은 동경의 크기는 필시 지금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¹⁸⁾는 라이초의 회상처럼, 자각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문학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자신의 천직을 찾았다. 이는 당시의 사회가 직업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으며, 여성들에게 열려진 가능성이 문학 등 극히 일부 분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립에 대한 동경

대다수의 여성들이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어머니로 살아가는 사적영역에 묶여있던 상황에서 그녀들이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 여성들에게 직업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가토 미도리는 「얼음주머니(氷囊)」(2-11)라는 작품에서 시마에(島江)라는 여성을 통해 이러한 여성들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마에는 18살에 초혼한 후 23살까지 세 번 결혼하여 두 아이의 엄마가 된 26살의 여성이다. 불행한 결혼생활로 고통을 겪은 결과 정신적 파탄에까지 이르렀으나 종교를 통해 이를 극복한 후에는, 간호사가 되어 시골의 한 병원에서 일하며 독립해 살아가고 있다. 오빠의 병으로 인해 잠시 휴직하고 병간호를 하고 있는 시마에는 전반적으로 무기력과 어두운 분위기가 지배하는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밝은 빛을 내는 긍정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칠석날 밤(七夕の夜)」(창간호)¹⁹⁾의 오쓰타(お薦)는 자신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을 강요하는 어머니와 갈등을 빚는다. 집안을 잇기 위해 여동생의

18) 平塚 らいてう(1955) 「わたしの歩いた道」 新評論社. (앞의 저서 7) 井手文子(1975) p.127 재인용)

19) 작자 모즈메 가즈코(物集和子). 『세이토』 발기인의 한 사람.

신랑감을 데릴사위로 들이고 싶어 하는 어머니에게는 결혼을 하려하지 않는 오쓰타가 방해로 여겨져, 15살이나 연상인데다가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온 남성과 결혼시키려 한다.

임신한 언니 오엔(おゑん)은 꿈을 품고 결혼했으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자조하면서도, 오래전부터 여배우가 되려고 생각해왔다는 동생의 고백에 일을 갖기보다는 결혼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언니는 매우 경멸하듯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여동생이 유명해지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웬지 여동생이 유명해지는 것이 싫었다. 역시 나처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모습은 정말이지 말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냉담했다.(『七夕の夜』 pp.106~107)²⁰⁾

언니 오엔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존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가정이야 말로 여자의 행복이라는 논리에 얽매어 있다. 그렇기에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생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면서도, 동생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오쓰타가 자신과 같은 삶의 궤적을 따라가길 바라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부장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언니와 함께 큰 소리로 울고 싶다”는 그녀의 한탄으로 작품은 끝을 맺는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쓰타가 결혼보다는 일을 갖기를 바라는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결말에서 언니와 함께 운다는 것은 결혼한 언니의 암담한 현실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쓰타의 결혼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일을 갖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오가사와라 사다(小笠原貞)의 「수령(泥水)」(2-9)의 주인공 오스미(おすみ)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여학교를 나와서도 그림공부를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결혼하기 전 교양을 쌓는 정도에 불과하다.

아아, 자신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집과 사람을 떠나 이 청년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 이도저도 아닌 미온적인 상태에서 해이해지는 생활을 뚫고 나가 뜨거운 피가 뛰는 소용돌이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싶다!

20) 姉は少なからず侮蔑の口調で云った。その癖、もし姉の名が高くなったら甚麼だらふとも考えてみた、何故か妹に其様名を上げて貰ひたくない、矢張り私と同じやうに家族を持つべきだと思った時、其様子は奈何にも取り付き端のない程冷たいものだった。

오스미는 전철이 들판을 달릴 때 그 청년이 있는 주위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청년의 모습은 푸른 빛 가운데 하나의 검은 그림자처럼 작게 보였으나 곧 나무 그늘에 가려 사라졌다. 오스미는 또 다시 침울해지면서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泥水』 p.13)²¹⁾

젊은 화가들의 “하찮은 소문이나 행동에도 가슴의 피가 끓어오를” 정도로 그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오스미가 결혼을 앞 둔 여성의 교양정도에 머무는 그림공부에 만족할 수는 없다. “자신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집과 사람”을 떠나 “뜨거운 피가 뛰는 소용돌이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회에 나가 활동하며 그림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젊은 화가의 모습처럼 화가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꿈 또한 점점 멀어져만 간다.

앞의 작품이 예술에 대한 동경을 보인다면 기우치 데이(木内錠)의 「노사(老師)」(제2권 9호)에는 현실적인 여성인 오루이(お類)가 그려져 있다.

“24살이 되었어도 자신의 손으로 입을 옷 한 장 만들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초조”해 하며 “뭐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다. 돈을 벌어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하고 생각하는 그녀로서는 “일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3, 4년을 시시한 예능삼매경에 빠져” 지낸 지난날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녀는 학생들 사이에 섞여 산술이나 부기, 타이프라이터를 배우고 남몰래 영어회화를 배우러 야학에 다니면서 여사무원 자격을 얻기 위해 공부에 매진한다.

“영어회화를 능숙하게 하고 타이프라이터 기술을 익히면 도쿄나 요코하마 주변의 큰 상점에 고용되어 34엔은 간단하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람들에게 빈번히 이같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아서 배운 예능을 버리고 (중략) 주판의 세계에 들어설 결심을 했다. (중략) 이제까지 배워온 예기로 살아가면 어떨까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중략) 본인도 생생한 예인의 이면을 보았기에 여관임관이 되는 쪽이 한층 자신의 신상에 무난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老師』 pp.45-46)²²⁾

21) ああ此自分の背にくっついて居る暗い家、と人から離れて、この青年のゆく道を、一所に歩いて行き度い、生ぬるい湯の中にふやけた様な生活を突き破って、熱い血のほと走る様な渦の中に、自分の身を投げ入れたい！おすみは電車が野の中を走ってゆく時、彼青年の居るあたりを熱心に眺めて居た。青年の姿は緑色の中に一の濃い黒い影の様に小さく見えたのだったが、直ぐ木の蔭にかくれておわた。おすみはまた沈んだいらいらした心持がしてくる様におもわれ t.

부친의 사후 좋아하는 예능을 버리고 스스로 “주관의 세계에 들어설 결심”을 한 것은 예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여공무원 쪽이 자신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능으로 대성할 정도의 기량이 자신에게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예술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수입이 더 좋은 공무원의 일을 택했다. 이는 모친과의 생활을 혼자 힘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오루이는 이 시기 대부분의 여성들이 문학이나 예능의 일을 동경하며 사무직을 경시하는 것과는 달리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을 개척하는 데서 보다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하겠다.

우에노 요코(上野葉子)는 평론 「진화상으로 본 남녀(進化上より見たる男女)」(2-10)에서 남녀의 선천적 능력의 차이는 없으나 역사·사회적으로 남성중심의 조직이 굳어져 현재의 나약한 여성의 특질이 만들어졌다고 하며,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이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성 모두가 “남자의 신세는 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져야 한다. 끊임없는 자영의 정신이 없으면 역시 “남자에게 부양되고 있다”는 비굴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스스로 인류의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인류의 진화를 돕고 있다“는 신념이 없으면 안 된다. (「進化上より見たる男女」 p.78)²³⁾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우에노 요코는 여성의 자각과 활동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수반되는 생활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그녀가 말하는 여성의 자립은 독신여성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이 남편과 대등하게 인류의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갖고 힘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하며, 결혼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기

22) 「英語の会話が達者に出来て、タイプライターの心得でもあれば東京か横濱邊の大きな商店の雇はれたって三四十円がものは譯ない」と父の歿後、傍の人達から頻りに此様に云はれるのもとより好で仕込まれた藝をサラリと捨てて(中略)算盤玉の世界に身を以て飛込まうと決心した。(中略)是迄覺えた藝でやったらと云ふ人もあったが、(中略)当人もなまじ藝人の裏を見て居るので女判任官になる方が一層一人立の身の上に無難だと信じたからであった。

23) 一体に女に「男の厄介にはならぬ」と云ふだけの決心がましい。絶えず自営の精神がなければ、ヤッパリ「男に養はれている」と云ふ、卑屈な考えがあるからいけない。「自ら人類の仕事の一部をして人類の進化を助けているのである」といふ信念がなければいけない

도 한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까지도 여성의 직업은 부족하고 임금은 싸다”고 하며 현실적으로 여성이 직업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이유를 “지금까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여성들이 그 필요성을 만들어간다면 수용에 따른 공급의 길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낙관하며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의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4. ‘상실’로서의 직업

“졸업의 함성에 깨어나 비로소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²⁴⁾는 여주인공의 독백처럼 근대의 여성들은 여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직업을 얻어 생활의 전장에 뛰어들 것인가.

여성의 교육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스스로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소설에 그려지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원해서이기보다는 어려운 가정환경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된다. 중류가정 이상의 여성들은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에는 신부수업을 하며 집안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때문에 여성 스스로도 “여성이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이 여성의 길에서 벗어나 여자답지 못한”²⁵⁾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설사 자신이 원했다 해도 그 대우나 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이나 보람보다는 실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편지 한 통(手紙の一ツ)」(2-9)의 주인공은 졸업 후 “하나의 일을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만 두라는 애인의 말에 아낌없이 그 일을 버려버린다. 그녀는 “사랑과 일!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 보면 여자에게는 아무래도 사랑은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그녀의 태도는 당시로서는 일반적이라 하겠다. 일은 이처럼 결혼과 양자택일로 제기되었으며, 직업은 대부분 결혼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즈메 가즈코의 「오하(お葉)」(2-3)의 주인공은 여학교를 중퇴한 후 사미센

24) 가미치카 이치코(神近市子) 「편지 한 통(手紙の一ツ)」 제2권 9호(1912. 9)

25) 앞의 저서 2) 村上信彦(1983) p.21

이나 봉재를 배우며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24살이 되어서도 결혼을 못한 채 “그저 허무하고 목적 없는” 무료한 일상을 보낸다. 그녀는 “혼자 해나갈 수 있는 직업”을 찾고자 하나 “여자는 시집가는 존재”라며 부친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며, 외교관을 꿈꾸기도 하고 때로는 수녀, 비구니, 산과 등 여러 직업에 대해 고민한다. 그리고 고심 끝에 “학교의 선생이라도 되고 싶다”고 말하나, 교사가 되는 것은 “너무 잔혹한 일”이라는 오빠의 반대에 부딪치자 쉽게 포기하고 만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직업을 꿈꾸면서도 그녀는 직업에 대해 공상만할 뿐 현실적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는데, 이는 그녀가 직업을 결혼의 대체물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즉,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결혼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용모가 좋지 않아 결코 결혼할 수 없을 거라는 실망감 속에서, 이를 보상이라도 하듯 직업이라는 신기루를 쫓았던 것이다. 그렇기에 직업에 대한 고민은 결혼하지 못한 데서 오는 상실감을 더욱 가중시키며 그녀를 점차 무기력하고 히스테릭한 여성으로 만들어간다.

이와 같은 결혼의 대체물로서의 직업에 대한 의식은 기우치 데이(木内錠)의 「타인의 아이(他人の子)」(2-2)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결혼을 앞둔 27살의 영어 교사로, 그녀가 영어 교사라는 일을 택한 것은 자신이 결혼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오빠, 여동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저 “의미도 없이 기계적인 영어교사라는” 직업에 안주했던 것이다. “의미도 없이 기계적”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녀에게 영어교사라는 직업은 자립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때문에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즉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일 뿐이다.

오시마 기쿠코(尾島菊子)의 「어느 날 밤(ある夜)」(1-2)은, 결혼을 재촉하면서도 자신의 수입에만 의지하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의 속박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쓰기코(つぎ子)의 고단한 현실이 담겨 있다.

결혼을 여성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며 혼자만의 독립된 삶을 꿈꾸는 그녀이지만, 남편과 사별한 친구가 일하고 싶다고 하며 조언을 구하자 오히려 재혼을 권유하는 일견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이제부터 일따위를 얻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10엔이나 15엔의 월급을 받고 매일 아침마다 할인 전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와서는 하루 종일 시시한 일을 하고 저녁 무렵 피곤에 지쳐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나 주겠

어? (중략) 오히려 세상의 조롱꺼리나 되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라며 얼마나 경멸받을지 모를 일이야. (『ある夜』 p.44)²⁶⁾

여성의 일이나 위치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결국 자신을 관찰시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더욱이 결혼해서 줄곧 아이를 키워온 친구는 직업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만을 품고 있다. 조롱받는다 해도 “훌륭히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있는 것도, “이렇다 할만한 뛰어난 기예”가 있는 것도 아닌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신의 실생활을 예로 들어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소학교의 선생이나 여사무원 따위가 될 거면 게이샤가 되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을 억지로 참아야 했다는 쓰기코의 고백이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의 참담한 현실을 말해준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환상과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은 결국 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결혼과 일, 어느 쪽에서도 만족할 수 없는 근대 여성의 일면을 말해준다 하겠다.

가토 가즈코(加藤かずこ) 작 『시게코(重子)』(2-9)는 여교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시게코는 결혼생활을 1년 만에 청산하고 “억누를 수 없는 공명심이 부추겨 부모에게까지 대들고 목적도 없이 상경”하였으나, 3년만에 고향으로 어렵게 얻은 것은 “사립학교 간이과의 어떤 권위도 없는 졸업증서”에 불과했다.

“네 하지만, 저도 여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10엔이나 15엔의 짤 월급으로는……”하고 콧대를 세웠으나, 그런 주제에 10엔, 15엔의 짤 일자리도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重子』 p.167)²⁷⁾

그녀는 고향에 돌아와서는 여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왔다는 긍지를 내세우며 좋은 대우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나 마음에 드는 일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낸다. 그런 딸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 어렵게 상경하여 공부한 보람이 없다며 독신생활을 주장한다.

“할 수만 있다면 독신으로 지내고 싶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결혼

26) 今から勤めなんかに出て、それが何になると思ふの。十円や十五円の月給を貰って、毎朝々々割引電車で慌ただしく家を出て、そして終日下らない仕事をさせられて、夕方疲れ切って帰って来たって、誰が誉めてくれて? (中略) 却て世間ちゃ笑ってよ。何ていあの見素ばらしい姿だらうなんて、如何に軽蔑されるか知れないわ。

27) 「え、けども、私も女子最高の教育を受けて来たんですから、如何に何でも十円や十五円の安月給では……」と自分は見えを張っていたが、其癖十円十五円の安口も容易には無かった。

할 거면 학문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애써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을 등지고까지 상경한 보람이 없습니다.”(『重子』 p.167)²⁸⁾

시게코는 자신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여성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이상과는 너무나 멀었다. 어렵게 직업을 구했다 해도 짊어짐에 일도 익숙지 않아 얼마 못 가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된다. 역에서 표를 팔기도 하고 가정교사 등 여러 일을 전전하나 그녀가 안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지는 못했다. 아버지의 결혼 권유에 자신 있게 독신생활을 주장하던 그녀였으나 “여자의 독립은 불가능하다. 기량 있는 남자에 기대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자조할 정도로 점차 자신감을 잃어간다.

결국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느낀 그녀는 “빨리 어딘가로 가고 싶다. 설령 10엔이나 8엔이라도”라고 할 정도로 불안해져 결국 “실패에 실패를 거듭, 전전한 끝에 마침내 마음에도 없는” 시골 어촌마을의 소학교에 자리를 잡게 된다.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에게 “벌써 교장의 바로 다음 지위”에 올랐다, 영어나 한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등 자신이 얼마나 유용한 인재인지를 내세운다. 그러나 지인에게 “부평초에 불과한 학력불충분한 자라도 일할 수 있는 마음편한 일자리가 있으면 배려 부탁드립니다”라고 편지를 쓰는 초라한 모습이 그녀의 현실이다.

여교사라는 직업은 그녀에게 어떠한 긍지도 가져다주지 못한다. 오히려 “꿈도 희망도 상실한 채 소외된 주인공”²⁹⁾의 모습만이 떠오를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이야말로 시게코의 마지막 보루이다. 여성이 결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립하고자 했을 때 경제적 독립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결혼이라는 울타리보다는 스스로 살아가는 독신여성의 삶을 택했다는 데서 이전의 봉건적 여성들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간자키 쓰네(神崎 恒)의 「타이피스트(タイピスト)」(2-4)에는 3년간 프랑스에서 그림을 배우고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화려한 류코(竜子)에 비해 타이피스트의 일을 하는 자신을 초라하게 바라보는 이쿠에(郁枝)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문득 오른편의 커다란 거울 속을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잘 갖

28) 「出きる事なら独身で通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本当に阿父さんの仰有る通り、此處で結婚してふ位なら、私學問も何も爲なくてよかったです。それでは折角皆さんの仰有る事に背いてまで上京した甲斐がありませんわ。」

29) 飯田祐子(1997) 「『青鞥』の中心と周辺」 『名古屋近代文学研究』(通号15) 名古屋近代文学研究会. p.99

취진 류코와 나란히 아가씨도 아니고 여학생도 아닌 직업적인 여자에게 공통하는 일종의 형태에 딱 맞아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는데 대해 왠지 한심한 느낌이 들었다.(『タイピスト』 p.96)³⁰⁾

예전 사교모임의 교제로 시작된 사이이지만 현재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 커다란 거울 속에 비친 류코가 새로 맞춘 코트를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잘 갖춰진” 모습인 데 비해 그 옆에 나란히 비친 이쿠에는 “아가씨도 아니고 여학생도 아닌 직업적인 여자에게 공통하는 일종의 형태에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묘사된다.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적 특성만이 드러나는 이쿠에의 모습은 ‘자신’이라는 존재감을 잃어버린 상실의 상징이다.

예전 사교모임의 교제로 시작된 사이이지만 현재 두 사람의 생활은 그 모습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류코가 “서양에서 돌아온 것을 간판으로 내세워” 자신의 화실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싶을 때 그림을 그리면서도 생활할 수 있”다면, 이쿠에는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사무실에 갇혀 타이프를 쳐야 한다. 그런데도 류코는 이쿠에와 예전과 같은 교제를 계속하려 하나, 이쿠에에게 류코는 그녀가 잃어버린 화려했던 “예전 생활의 흔적”, 즉 꿈과 희망, 동경으로 가득 찼던 시절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이쿠에로서는 류코야말로 자신의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가중시키는 인물이라 하겠다.

5. 마치며

본 연구는 『세이토(靑鞆)』의 1기의 평론과 소설을 통해 일본근대여성의 직업의식에 대해 고찰을 시도하였다.

일본 여성의 직업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은 다이쇼기, 특히 제1차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로, 근대여성의 직업에 대한 연구 역시 대부분 이 시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본고는 일본근대여성들이 직업의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추이에 초점을 맞춰 『세이토』에 보이는 다이쇼 초기까지의 과도기적 양상에 주목하였다.

결혼하지 않는 인생을 꿈꾸며 독립을 동경하고 직업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30) ふと横手の大きな姿見の中を見ると、頭の先きから足の先きまでスッキリと整った童子とならんで、娘でもなし女学生でもない職業的な女に共通の一種の型に嵌まった自分の姿がありあり映って居るのに、我れにもなく情けない気がした。

여성들은 대부분 문학이나 예술을 추구했는데 이는 이외에 여성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라이초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은 경시하는 반면, 문학이나 예술 등의 재능을 살리는 일을 ‘천직’으로 삼아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여성의 교육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스스로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소설 속 대부분의 여성은 어려운 가정환경에 의해,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기 전까지의 시간에 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본인이 원했던 일이라고 해도 이상과는 다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에 긍지나 사명감보다는 오히려 상실과 패배감을 드러내게 된다. 그렇다 해도 직업인으로서의 새로운 상황이 그녀들에게 새로운 인간관, 사회관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직업이 여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정되어갔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세이토』 1기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메이지 말에서 다이쇼 초기의 전체적 양상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부라 하겠다. 여성해방지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평가되는 2기 이후에는 『세이토』 여성들의 직업의 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参考文献】

『青鞜』復刻版(1983) 不二出版

飯田祐子(1997) 「『青鞜』の中心と周辺」 『名古屋近代文学研究』(通号15) 名古屋近代文学研究会.

井手文子(1975) 『『青鞜』の女たち』 海燕書房.

岩田ななつ(2003) 『文学としての『青鞜』』 不二出版

奥 むめお(1931) 「職業婦人の進出」 『婦人公論大学』 中央公論社.

近代婦人問題名著選集(1985) 「職業婦人について」 『女給生活の新研究』社会問題編、日本図書センター

小山静子(2007) 『良妻賢母という規範』 勁草書房.

中央公論社編 『婦人公論大学』 1931-32

村上信彦(1983) 『大正期の職業婦人』 ドメス出版,

平塚らいてう(1975) 『原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 上券 大月書店.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日本で最初の女性による文芸誌とされる『青鞜』の一期の評論と小説に見える日本近代女性の職業意識の考察にある。

日本の女性の職業が社会全般へ広がるのは大正期、特に第一次世界大戦の前後であり、そのゆえ、近代日本の女性の職業に関する研究においてもたいがいこの時期に照明が当てられている。しかし本稿は近代女性の職業の意識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くかを明らかにするため、大正はじめごろの過渡期的な現象に注目した。

結婚しない新しい人生を夢見、自立に憧れ、職業で成功したいと願っていた女性たちは、たいがい文学か芸術を追求していた。そのゆえ、らいてうをはじめ数多い女性たちが稼ぐための職業は軽視する反面、文学や芸術など才能をいかすことができる仕事を '天職' として自分の人生の意味を探ろうとした。

女性の教育が高くなるに伴い自分の意志を持って新しい人生を開拓しようとする、女性みずから職業を持つとする傾向を見せたとは言っても、小説に描かれている多くの女性は貧しい家の環境によって、もしくは結婚する前までという限定で職業に就く場合が多かった。たとえ本人の願ったことだとしても彼女たちの理想とは違って、現実の職業婦人の境遇は厳しいものであったので仕事に誇りや使命よりむしろ喪失や敗北を感じるようになる。

しかしそうであっても職業婦人としての新しい状況が彼女たちに新しい人生観、社会観をもたらしたという事実を否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職業が女性の新しい生き方として認められていたところにその意味があると言えるだろう。

キーワード：職業婦人、青鞜、大正、近代、女性、天職、職業、自立、職業意識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